

난원공 개존증 (PFO)을 통해 전파된 패혈성 색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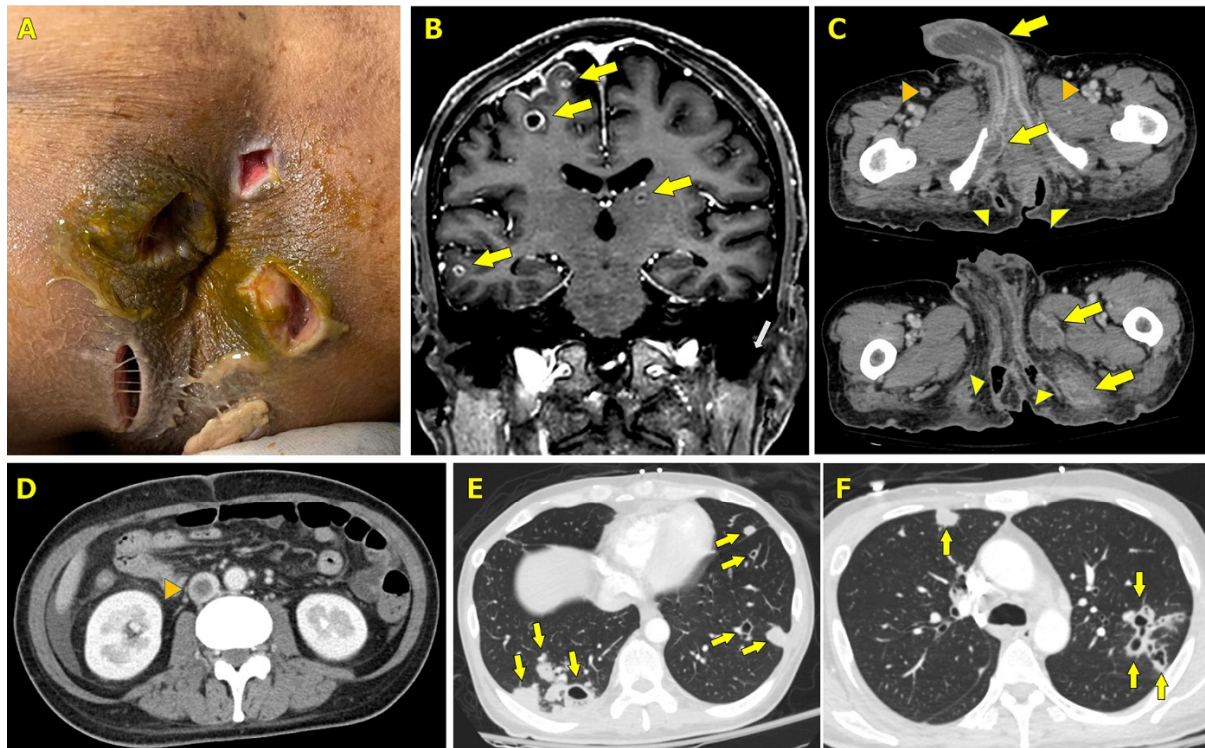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황윤정, 신동호

서론: 골반의 패혈성 혈전이 패혈성 폐색전증과 함께, 난원공 개존증을 통해 뇌에 색전성 뇌졸중과 뇌농양을 유발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48세 남자가 보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전신성 긴장성 간대성 간질발작을 하였다. 환자는 최근 당뇨병을 진단받았으며, 내원 1개월 전 항문 농양 및 항문루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은 병력이 있었다. 진찰 시 항문주위 열개창 및 농양이 관찰되었다. (Figure A)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대뇌와 소뇌에 패혈성 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다양한 크기의 뇌농양이 발견되었다. (Figure B) 컴퓨터단층촬영영상에서 골반 내 다수의 농양과 양측 대퇴정맥부터 하대정맥까지 심부정맥혈전증이 있었으며, (Figure C & D) 다수의 패혈성 폐색전증도 확인되었다. (Figure E & F) 항문주위 농양에 대해 절개 및 배농을 하였고, 항생제 (ceftriaxone + metronidazole) 치료를 시작하였다. 배양검사 결과, 혈액, 소변, 상처의 농양에서 *K. pneumoniae*가 동정되었다. 색전성 뇌농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시행한 agitated saline을 이용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에서 난원공 개존증이 확인되었다. 심부정맥혈전증의 추가 색전 예방을 위해 하대정맥 필터를 삽입하였으며, 출혈 위험이 감소한 뒤 경구 항응고제를 시작하였다. 8주간의 항생제 및 항응고제 치료 후, 골반 농양과 심부정맥 혈전은 소멸되어, 9주째 하대정맥 필터를 제거하였고, 현재까지 항응고 치료 중으로, 향후 경피적 난원공 개존 폐쇄술 시행 예정이다.

결론: 이번 증례는 골반내 농양으로 인해 생긴 패혈성 심부정맥혈전이 난원공을 통해 동맥으로 이동하여 패혈성 색전증을 유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면역저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에게서 갑작스러운 다발성 전신 패혈성 색전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감염성 심내막염과 함께 난원공 개존증을 감별하기 위해 agitated saline을 이용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해보아야 하겠다.



- A. 항문 주위 농양에 대해 절개 배농을 시행했던 열창
- B. 양측 뇌 실질의 다발성 뇌농양 소견
- C. 항문 주위 열창 (화살표머리)과 함께 음경과 골반강에서 다수의 농양 및 파급된 염증 (화살표), 대퇴정맥 혈전 (주황색 화살표머리)이 관찰됨
- D. 심부정맥 혈전은 하대정맥까지 이어짐.
- E & F. 양측 폐의 다양한 크기의 염증성 결절 및 내부 공동들을 포함한 패혈성 폐색전